

아케노베 광산 메이신 전차는 1929 년에 건설되었으며, 아케노베의 광산에서 미코바타의 선광장까지 광석을 운반하는 6km 의 철도였습니다. 1945 년 광산은 좁은 터널에 맞도록 설계된 객차를 도입해 직원들이 두 마을을 오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. 1949 년 이 서비스는 일반 대중에게도 확대되었고, 통근과 생활에 편리한 대중의 발이 되었습니다. 전차의 승차 운임은 딱 1 엔이었기 때문에 ‘1 엔 전차’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. 객차는 메이신 전차가 영업을 중단하고 아케노베 광산이 폐쇄되기 2 년 전인 1985 년까지 매일 운행되었습니다.

그 객차 중 3 량은 지금도 아케노베에 전시되어 있으며, ‘시로가네(은)’, ‘아카가네(구리)’, 그리고 ‘구로가네(철)’ 라고 불립니다. 2010 년 전국 규모의 모금운동과 자원봉사활동 덕분에 방문객을 수송하는 ‘구로가네’ 열차용 70m 의 선로가 만들어졌습니다. 현재 선로는 150m 까지 연장되었으며 4 월에서 11 월 사이에 매월 첫 번째 일요일과 여름방학, 골든위크 등 특정일에 승차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